

【논문】

트라시마코스 정의(正義) 규정의 일관성 고찰

임 성 진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윤리학, 정치철학

【주요어】 트라시마코스, 정의, 더 강한 자의 이득, 통치자에게 복종, 남에게 좋은 것, 일관성

【요약문】 트라시마코스는 『국가』 1권에서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규정을 제시한다.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다. 2)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3)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규정들 사이에 일관성은 없어 보인다. 적어도 더 강한 자의 입장에서 1)과 3)은 서로 모순된다. 규정들의 표현만 놓고 보면, 1)~3) 사이에 일관성은 없다. 하지만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3)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다. 피치자가 통치자에게 복종하여 통치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정의이고, 통치자가 부정의를 행하여 자기 이득만을 갖게 되는 것이 부정의이다.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참주는 부정의한 사람의 전형이다. 이런 측면에서 1)~3)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다. 이 경우에 세 가지 규정 중 3)이 트라시마코스의 궁극적인 규정이다. 그가 클레이토폰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2)보다는 1)을 궁극적인 규정으로 여긴다. 1)에는 정의에 관한 언급만이 있는 데 반하여, 3)에는 부정의에 관한 언급도 있다는 점에서, 3)이 1)보다 정의와 부정의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3)이 그의 궁극적인 규정이다.

I. 서론

최근 들어 ‘정의(正義)’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면에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는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합당한 공정한 몫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합당한 몫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분노한다. 자기에게 합당한 몫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들을 향한 분노가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며, 이와 같은 부당한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 파악과 대처 방안, 행위가 요청되고, 근본적으로는 정의에 대한 이해 또는 앎이 요청된다. 정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국가』 1권에서 이 물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2~10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진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어떤 근거에 의거하여 무엇이라고 제시되고, 올바른지 여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음이 어떤 상황에서 제기되는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1권의 논의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2~10권의 논의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물음이 처음으로 제기되는 1권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 즉 케팔로스, 폴레마르코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正義)에 관한 견해가 제시된다. 소크라테스는 케팔로스가 말하는 “정직함과 남한테서 받은 것을 갚는 것(331c)”이 무조건 정의(正義)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처음으로 던진다. 케팔로스의 아들 폴레마르코스는 논의를 인수한 다음에, 시모니데스의 말을 인용하여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331e)”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331e~336a에서 폴레마르코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낸다. 폴레마르코스의 주장에 따라,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값는 것이 정의라면, 적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정의이다. 그러나 논의를 통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부정의로 밝혀지고, 적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따라서 각자에게 값을 것을 값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라시마코스가 논의에 끼어들어(336b),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338c), 2)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339b), 3)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343c)이라는 세 가지 규정을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1)~3)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 커퍼드 이전의 학자들은 트라시마코스에게서 어떤 하나의 일관된 입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으며, 그리하여 그의 주장이 갖고 있는 입장을 윤리적 허무주의, 법률주의, 자연권주의, 심리적 이기주의라고 각기 다르게 결론을 내렸다¹⁾.

1)과 3)은 서로 모순된다. 더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1)에 따르면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지만, 3)에 따르면 정의는 더 약한 자에게 좋은 것이다. 343c에서 정의란 ‘남에게 좋은 것’이자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득’라고 말해지고, 367c에서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자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고 말해지는데서, ‘이득(sympheron)’과 ‘좋은 것(agathon)’은 서로 동일한 말임을 알 수 있다. 더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1)과 3)은 서로 모순된다. 게다가 2)에 따르면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통치자와 다르지 않은 더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규정은 자기에게 상관이 없다. 결국 더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1)~3)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까닭에 커퍼드 이전의 학자들은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규정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커퍼드(1947)는 트라시마코스의 세 가지 규정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고, 그 중에서 3)이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라

1) 이정호, p.107. 이 논문 1번 각주에 Cross & Woosley, Sidgwick, Jowett의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어 있으며, Kerferd(1947)가 자기 이전 학자들의 입장을 윤리적 허무주의, 법률주의, 자연권주의, 심리적 이기주의로 분류했다.

시마코스의 정의 규정의 일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²⁾. 후라니가 트라시마코스의 궁극적인 규정은 2)라고 주장하며, 커퍼드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규정의 일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다섯 학자가 ‘프로네시스’라는 잡지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니콜슨이 트라시마코스의 궁극적인 규정은 3)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의 일단락을 지었다. 이 문제의 결론은 트라시마코스의 궁극적인 규정이 3)이라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주장이 제시되면서 다시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³⁾. 도대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국가』 1권에서 전개되는 트라시마코스의 논의로 되돌아가 이를 검토하며 세 가지 규정을 하나하나 고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II에서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 III에서는 2)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규정, IV에서는 3)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규정을 고찰할 것이며, 고찰 결과 3)이 트라시마코스의 궁극적인 규정으로 밝혀질 것이다.

II.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 폴레마르코스의 정의(正義)에 관한 견해가 정의에 대한 정의(定義)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논의를 통해 밝혀냈을 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트라시마코스는 336b에서 논의에 끼어든다. 그는 338c에서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의 정의에 관한 첫 번째 규정이 제시된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이 주장이 구체

2) 이정호, p.108.

3) 1980년 이후에 Reeve, Irwin, Dorter는 1)이 트라시마코스의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이정호, Chappell은 3)이 그의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Everson은 그의 규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는 338d~339a에서 ①~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① 각 국가(polis)에서 어떤 집단은 더 강하고, 통치를 한다. 이 집단은 국가의 정체를 결정한다. 만약 이 집단이 한 사람으로 구성되면, 그 국가는 참주정이다. 만약 이 집단이 소수로 구성되면, 그 국가는 귀족정이다. 만약 이 집단이 다수로 구성되면, 그 국가는 민주정이다.
- ② 각 국가에서 통치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게끔 법을 제정한다. 민주정은 민중이나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제정한다. 귀족정은 소수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제정한다.
- ③ 각 국가에서 통치자들은 피치자들에게 정의는 자신들이 제정한 법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공표하고서는, 이런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정의롭지 못한 자들로서 처벌한다.
- ④ 각 국가에서 정의는 동일한 것, 즉 수립된 정권의 이득이다.
- ⑤ 각 국가에서 수립된 정권은 더 강하다.
- ⑥ 각 국가에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다⁴⁾.

그는 국가의 정치 현상을 염두에 두고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각 국가는 두 집단으로 구성된다. 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강하고, 통치를 하는 반면에, 다른 집단은 더 약하고, 통치를 받는다. 통치를 하는 더 강한 집단이 국가의 정체를 결정하며, 그 집단의 수, 성격에 따라 국가는 참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된다. 그런데 각 국가의 정체가 어떻든지 간에 통치자들(=더 강한 집단)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게끔 법을 제정한 다음에, 피치자들(=더 약한 집단)에게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 정의라고 공표하고서는,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부정의한 자들로서 처벌한다. 피치자들은 통치자들이 제정한 법에 복종할 경우에는 정의로운 자들이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의한 자들이 된다. 부정의한 자로 간주된 피치자는 처벌을 받는다. 통치자들이 제정한 법에 피치자들이 복종할 경우에 피치자들은 통치자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줄 뿐, 피치자들 자신에게는

4) Reeve, 1988, pp. 10~11.

아무 이득도 없다. 법을 위반한 피치자는 일시적으로 통치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으면 법에 복종할 때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피치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는 걸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법에 복종할 것이다. 반면에 통치자들은 이득을 얻게 된다. 국가의 정체가 어떤 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하며, 정의는 수립된 정권, 통치자들의 이득이다. 각 국가에서 통치자들은 더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다.

트라시마코스는 통치자들이 제정한 법에 피치자들이 복종하여 통치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피치자들이 법에 복종하는 행위가 정의이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부정의라고 통치자들은 피치자들에게 공표하겠지만, 피치자들이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통치자들이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통치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피치자들에게 내세우는 구실이나 허울에 불과하다. 진정한 정의는 피치자들이 법에 복종함으로써 갖게 되는 통치자들의 이익이다. 트라시마코스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말하고자 했다.

Ⅲ.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규정

트라시마코스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고 주장하여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339b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이득이라는 건 자기도 인정하지만, 정의가 ‘더 강한 자’의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역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지를 그에게 묻는다. 그는 이를 긍정한다. 앞서 논의된 ③에 따르면, 통치자들이 제정한 법에 피치자들이 복종하는 게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에 관한 두 번째 규정, 즉 2)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

중하는 것'이라는 규정이 제시된다.

트라시마코스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과 2)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제시하는데, 339c에서 소크라테스는 그가 두 가지 규정을 모두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통치자들이 a.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자들'이거나 b. '어떤 점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a의 경우에 통치자들은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결코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라면, 통치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피치자들이 이행하는 것도 정의이다. 국가에서 통치자는 더 강한 자이다. 통치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피치자들이 이행할 경우에 통치자들은 이득을 얻는다. 이 경우에 트라시마코스는 1)과 2)를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b의 경우에 통치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라면, 통치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법을 피치자들이 이행하는 것도 정의이다. 통치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법들을 피치자들이 이행할 경우에 통치자들은 이득을 얻지 못하는데, 이는 1)과 반대된다. b의 경우에 1)과 2)는 서로 모순되기에, 트라시마코스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가 b를 택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화 현장에 있던 클레이토폰이 트라시마코스를 위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클레이토폰이 보기에, 트라시마코스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을 '더 강한 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340b). 어떤 점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통치자는 적어도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들을 법으로 제정할 것이기에, 클레이토폰은 b를 택한다. 그리고 그는 통치자가 지키라고 만든 법을 피치자가 이행하는 게 정의라는 걸 인정하여 2)를 받아들인다. 그의 제안에 따라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을 1') '정의는 더 강한 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으로 수정하면, 1')과 2) 사

이에는 일관성이 유지된다. 트라시마코스가 클레이토폰의 제안에 따라 1)을 1')으로 수정한다면, b를 택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처음에는 통치자가 어떤 점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자임을 인정하여 b를 택했지만, 그 이후에 340c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 강한 자로 부르는 걸 거부한다고 말함으로써 정의가 '더 강한 자가 자신의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는 걸 거부한다. 그는 1)을 1')으로 수정하기를 거부하여 클레이토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40d이하에서 클레이토폰의 제안이 거부된 이유가 제시된다. 트라시마코스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 강한 자로 부르는 걸 거부하는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만이 더 강한 자일 수 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전문가만이 진정한 전문가이기에, 실수를 하지 않는 통치자만이 진정한 통치자이다. 진정한 통치자(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법으로 제정하여 피치자가 이를 이행하게 만든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만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얻으며, 앞서 말했듯이 통치자는 더 강한 자와 동일하다. 트라시마코스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어서, 1)이 1')으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은 확고하게 있어야만 하기에, 2)보다는 1)이 궁극적인 규정이다. 그는 a를 택하며, 이로써 1)과 2) 사이에는 여전히 일관성이 있다⁵⁾.

5) 트라시마코스가 클레이토폰의 제안을 거부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만을 통치자로 여기는 게 타당할까? 그는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를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 338d~e에서 제시되는 참주정의 통치자, 귀족정의 통치자, 민주정의 통치자 모두 현실에서 접하는 경험적인 통치자이고,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통치자가 아니라 때때로 실수를 하는 통치자이다. 그는 현실에서 여러 통치자들을 둘러싼 정치 현상을 관찰한 후에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338c~340c까지의 논의에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치자는 경험적인 통치자이기에, 계속해서 b를 택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통치자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경험적인 통치자라면, 1)을 1')으로 수정하라는 클레이토폰의 제안을 받아들여 1')과 2)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그의 원래 생각에 부합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이 1')으로 수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340d에서 a를 택했을 것이다. 그가 보기에,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실제로 얻고 있으며, 자기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도 그렇다고

소크라테스는 341c부터 이루어지는 논의를 통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뒤집는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문가가 발휘하는 기술은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이를 제공한다. 기술은 기술을 발휘하는 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일종의 기술인 통치술 또한 통치술을 발휘하는 자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통치술이 적용되는 대상에게 이득이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는 통치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피치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하거나 지시한다. 이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옳다면, 정의는 피치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지 통치자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더 강한 자는 통치자이고, 더 약한 자는 피치자이기에, 정의는 더 약한 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지 더 강한 자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트라시마코스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반박을 수용하여 1)을 포기하거나, 1)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IV.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규정

343b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앞서 이루어진 소크라테스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통치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통치자는 양치기와 다름이 없어서, 양치기가 양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며 양을 살찌게 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양치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그는 1)을 고수하기 위해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만을 통치자로 인정하여 1)과 2)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를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반박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트라시마코스는 경험적인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란 통치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의 입장에 부합될 것이며, 소크라테스의 논박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듯이, 통치자도 피치자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 자신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며 통치를 한다⁶⁾. 그렇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은 고수될 수밖에 없다. 343c에서 3) 정의에 관한 세 번째 규정, 즉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규정이 제시된다. 그는 주로 정의에 초점을 두는 1), 2)와는 달리 정의뿐만 아니라 부정의에도 초점을 두는 3)을 제시한다. 그는 3)을 제시하면서, 정의란 1. 진실로 ‘남에게 좋은 것’, 2.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득’, 3. ‘복종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 반면에, 부정의란 4. ‘정의와 반대되는 것’, 5. ‘참으로 순진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6. ‘피치자가 더 강한 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행하여, 더 강한 자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만들지, 결코 피치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6은 3)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기에 1~6을 고찰하여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3)이 어떤 규정인지 명확해질 것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1. ‘남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1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피치자에게 좋은 것이 정의’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6) 이 부분에서 트라시마코스가 경험적인 양치기 비유(이정호, pp.119-120)로만 돌아갔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가 경험적인 양치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치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가 343d 이하에서 제시하는 예들을 보면, 경험적인 양치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걸로 보인다. 그는 338c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도 경험적인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340d에서 1)을 고수하기 위해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만을 통치자라고 주장했다가 소크라테스의 반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래의 자기 입장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하는 게 논의 맥락상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트라시마코스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치기를 계속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는 경험적인 통치자든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든간에 통치자는 피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으며 자기 이득만을 염두에 둔다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기 위해 양치기 비유를 들었다. 트라시마코스는 경험적인 통치자든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든 통치자가 자신의 이득만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소크라테스의 반박을 거부하는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경험적인 통치자든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든 통치자가 피치자의 이득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트라시마코스를 반박할 것이다.

있고, ‘피치자의 입장에서 통치자에게 좋은 것이 정의’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는 1과 함께 2, 즉 ‘정의는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득’을 말한다. 2는 ‘피치자의 입장에서 통치자에게 좋은 것이 정의’라는 1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2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피치자에게 좋은 것이 정의’라는 1의 의미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1과 2는 다르다. 그런데 그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었다. 더 강한 자는 통치자며⁷⁾, 사람들은 두 집단, 즉 더 강한 자 또는 통치자로 구성된 집단과 더 약한 자 또는 피치자로 구성된 집단으로 나뉘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2에 ‘통치자’라는 말이 추가된 점에서만 2와 1)이 다르지, 실질적으로 2는 1)과 동일하다. 그가 1)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2에서 드러난다. 그는 2와 3, 즉 ‘정의는 복종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7)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더 강한 자와 통치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이정호, p.118, 121, Annas, pp.41-42, Reeve, 1988, pp.16-18). 이 견해들은 먼저 그가 2)보다는 1)을 우위에 놓는다는 점에서, 그 다음으로 통치자가 적용되기 곤란한 개인 상호간의 계약 관계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예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343c를 비롯하여 339e, 341a, b에서 더 강한 자와 통치자는 동일하다. 트라시마코스가 2)보다는 1)을 우위에 놓는다고 해서 더 강한 자와 통치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봐야 할 이유는 없다. 더 강한 자와 통치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통치자는 피치자의 법에 대한 복종을 전제하는 반면에, 더 강한 자는 더 약한 자의 법에 대한 복종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데 있을 것이다. 통치자는 합법적으로 피치자에게 법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더 강한 자는 법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서도 힘으로 더 약한 자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343c까지의 논의에서 트라시마코스는 더 강한 자로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에, 더 강한 자와 통치자는 동일하다. 물론 343d 이하의 논의까지 고려한다면 통치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더 강한 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통치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더 강한 자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참주와 같이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자만이 트라시마코스가 진정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정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더 강한 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이다. 그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더 강한 자이다. 더 강한 자와 통치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 Reeve(1988, p.19)조차 이에 동의한다.

de라는 희랍어로 대비시킨다(343c). 2는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말하는 반면에, 3은 복종하며 섬기는 자, 즉 더 약한 자 및 피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말함으로써 2와 3은 대비된다. 통치자가 제정한 법을 피치자는 지키는데, 이때 피치자는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겨서 정의로운 자가 되지만, 이는 통치자에게만 이득이 되며 피치자 자신에게는 오히려 해가 된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통치자 및 더 강한 자에게 이득이 됨을 2를 통해 주장하는 반면에, 정의가 피치자 및 더 약한 자에게 손해가 됨을 3을 통해 주장한다. 이는 의미상 1)과 다르지 않다. 이제 1~3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1~3의 표현만 놓고 보면, 1은 2, 3과 동일하지 않다. 2, 3이 ‘더 강한 자와 통치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이 정의’라는 의미만을 갖는 반면에, 1은 이런 의미와 함께 ‘더 약한 자와 피치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정의’라는 의미도 갖는다. 2, 3이 실질적으로는 1)인 반면에, 1이 3)이라면, 3)과 1)은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서 보면, 1은 2, 3과 다르지 않다. 그는 1을 주장할 때, 실질적으로는 2, 3을 주장한다. 그는 3)을 제시하면서 2, 3과 다르지 않은 1)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3)은 실질적으로 1)이다.

트라시마코스는 부정의에 관한 주장도 펼친다. 그는 부정의가 4.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1에 따르면,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다. 부정의가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면, 부정의는 자기에게 좋은 것이다. 344c에서 트라시마코스가 ‘부정의는 자신을 위한 이득’이라고 한 말에서 4가 말하는 게 ‘부정의는 자기에게 좋은 것’임이 확인된다. 부정의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면, 부정의는 ‘통치자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피치자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4와 함께 5, 즉 ‘부정의는 참으로 순진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과 6, 즉 ‘부정의는 피치자가 더 강한 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행하여, 더 강한 자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만들지, 결코 피치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을

말한다. 5에 따르면, 부정의는 참으로 순진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즉 피치자들 및 더 약한 자들을 조종한다. 대개 피치자는 통치자가 제정한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믿을 만큼 순진할 테고, 법을 지킴으로써 통치자로부터 정의로운 자라고 말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통치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피치자를 조종한다. 6에서 말하듯이, 피치자는 통치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행하여 통치자만을 행복하게 만들 뿐, 피치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5, 6에 따르면, 부정의는 통치자에게만 이득이고, 피치자에게는 손해이다. 이제 4~6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4~6의 표현만 놓고 보면, 4는 5, 6과 동일하지 않다. 5, 6이 ‘더 강한 자와 통치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이 부정의’라는 의미만을 갖는 반면에, 4는 이런 의미와 함께 ‘더 약한 자와 피치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부정의’라는 의미도 갖는다. 4는 5, 6과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서 보면, 4는 5, 6과 다르지 않다. 그는 4를 주장할 때, 실질적으로는 5, 6을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통치자만이 부정의를 행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피치자는 부정의를 행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트라시마코스는 1)을 제시할 때는 통치자의 부정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3)을 제시할 때는 통치자의 부정의에 관해서도 말한다. 통치자의 부정의에 관한 내용도 3)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3)은 1)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다. 트라시마코스는 3)을 통해서 부정의, 특히 통치자의 부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1)에서는 통치자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정의롭게 행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의하게 행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말해지지 않았지만, 3)에서는 통치자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의하게 행위 해야 한다고 말해진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서 보면, 피치자는 통치자에 복종하여 정의로운 자가 되긴 하지만 통치자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줄 뿐 자기에게는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통치자의 부정의에 의해서 통치자만 이득을 얻고

피치자 본인은 손해를 보는 반면에, 통치자는 피치자의 복종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기도 하고, 자신이 부정의를 저질러서도 자기의 이득을 도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1~6에서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핵심이다. 3)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규정은 이를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을 포괄하는데, 정의에 관해서는 1)과 다르지 않고, 1)에서 말해지지 않는 통치자의 부정의에 관해서도 말한다.

트라시마코스는 343d에서 정의로운 자가 부정의한 자보다 어떤 경우에도 덜 가진다고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예를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예에서는 더 강한 자 또는 통치자로 구성된 집단과 더 약한 자 또는 피치자로 구성된 집단의 구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343d~e에서 세 가지 예, 즉 개인 상호 간의 계약 관계, 국가와의 관계, 공직자를 제시한다. 개인 상호 간에 계약 관계가 해지될 경우에, 정의로운 자는 부정의한 자보다 더 많이 차지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덜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자는 동일한 재산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반면에 부정의한 자는 더 적은 세금을 내며, 정의로운 자는 국가에서 받을 것이 있을 때에도 아무런 이득도 못 보는 반면에 부정의한 자는 많은 이득을 본다. 게다가 정의로운 공직자는 제 집안일을 소홀히 하여 집안 형편을 한결 더 어렵게 만들 뿐 그의 정의 때문에 국고에서 이득을 보는 건 전혀 없고 친척들이나 친지들을 부당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이들한테서 미움마저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부정의한 자는 정의로운 자와 정반대일 수 있다. 방금 제시한 세 가지 예에서 통치자 집단과 피치자 집단의 구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개인 상호 간의 계약 관계에서 두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무조건 피치자, 다른 한쪽은 무조건 통치자인 건 아니다. 피치자들 사이에서도 정의로운 자와 부정의한 자로 나뉠 수 있으며, 통치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통치자는 부정의한 자, 피치자는 정의로운 자라고 단정할 수 없

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피치자가 반드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통치자가 반드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다. 일부 피치자는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고, 일부 통치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국가에서 받을 것이 있을 때에 통치자만이 많은 이득을 보고 피치자는 아무런 이득도 못 보는 것도 아니다. 더 이상 통치자는 부정의한 자, 피치자는 정의로운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자는 관직을 맡아 통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자이다. 그런데 공직자가 정의로운 공직자와 부정의한 공직자로 나뉘게 되면, 모든 통치자가 무조건 부정의한 자는 아니다. 통치자 집단이 무조건 부정의하지도 않고, 피치자 집단이 무조건 정의롭지도 않으면, 343c까지 펼쳐진 트라시마코스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의 주장은 사람들을 피치자 집단과 통치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피치자 집단은 정의로운 반면에 통치자 집단은 부정의하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가?

트라시마코스는 344a에서 부정의한 사람을 ‘남들을 크게 능가할 (pleonektein)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참주를 전형적인 예로 든다. 물론 참주만이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참주정에서야 참주가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귀족정에서는 귀족이, 민주정에서는 민중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참주와 귀족과 민중 가운데 참주가 남들을 가장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참주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아서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다.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기에, 참주는 가장 완벽하게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서, 남의 것을 몰래 강제로 빼앗기를 단번에 하고, 참주가 저지르는 부정의는 부정의한 자인 참주를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부정의를 당한 자들이나 부정의를 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 게다가 참주가 시민들의 재물에 더하여 시민들 자신마저 납치하여 노예로 만들 경우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거나 축복

받은 사람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이처럼 참주의 부정의는 참주 자신에게는 이득이 되는 반면에, 부정의를 당하거나 정의로운 자에게는 손해를 가져다준다.

트라시마코스는 참주처럼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도 부정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344b에서 신전 절도범, 납치범, 가택 침입 강도, 사기꾼, 도둑 또한 부정의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말해진다. 그가 보기에, 부정의한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한 부류(x)는 참주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y)는 신전 절도범과 같은 사람이다. x와 y의 차이는 무엇인가? x는 공개적으로 부정의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는 반면에, y는 자신이 저지른 부정의가 발각될 경우에 처벌과 비난을 받는다. 트라시마코스는 부정의한 사람으로 x와 y를 모두 인정하되, x만이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부정의한 사람임을 염두에 둔다. 한 국가의 통치자인 참주 x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얻기 위해 부정의를 저질러서 피치자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피치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를 제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정의를 제지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의 부정의는 용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참주는 자기의 이득을 최대한 얻게 된다. 트라시마코스는 참주와 같은 사람만이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부정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여긴다. x만이 부정의한 자라고 언급될 가치가 있다. 348d에서 그는 언급할 가치가 있는 부정의한 사람으로 부정의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국가와 민족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서는, 이런 사람들만을 진정으로 부정의한 사람으로 염두에 둔다.

y는 x와 달리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y 역시 부정의를 저지름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는 있다. 트라시마코스가 348d에서 말하듯이, y는 자신의 부정의가 발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부정의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y의 부정의는 발각될 위험

이 항상 있으며, 발각될 경우에 y 는 처벌과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y 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정의를 발각되지 않는 게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될 테고, 부정의를 발각되는 건 처벌과 비난을 받게 되어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며,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통치자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주고 자기에게는 이득이 안 되더라도 처벌과 비난까지 받는 건 아니기에 부정의를 발각된 경우보다는 손해를 덜 볼 것이다. 피치자 중에 y 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통치자 중에도 y 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모든 통치자가 참주와 같이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통치자 중에서는 더 많은 권력과 힘을 지닌 통치자(m)도 있을 것이고, 더 적은 권력과 힘을 지닌 통치자(n)도 있을 것이다. m 은 참주처럼 행동하기 쉽겠지만, n 은 m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기에 참주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정의를 저지르는 건 어려울 수 있다. n 의 부정위가 m 의 이득을 침해할 경우에는 m 의 제지를 받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n 은 참주처럼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없는 통치자는 아니다. 물론 n 은 m 의 이득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치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부정의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는 있을 것이다. n 은 자신의 부정위가 발각될 경우 m 에 의해 처벌과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y 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n 이외에 피치자도 y 가 될 수 있다. 대개 피치자는 정의롭게 살겠지만 자기에게 이득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부정위가 발각된 경우보다는 손해를 덜 볼 것이다. 피치자가 부정위하게 살 경우에 다행히도 부정위가 발각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지만 발각되면 처벌과 비난을 받아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있다. 부정위의 발각 확률이 높고, 처벌과 비난으로 인한 손해가 크면 클수록 피치자는 손해의 위험을 안고 부정위를 저지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정의롭게 살 것이다. 물론 피치자 중에 부정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정의롭게 살면서 자신의 이득은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부정위를 저질러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부정위가 발각되어 처벌과 비난을 받아도 이에 크게 개

의치 않고서 이를 감당해내려는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y 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가 무조건 정의롭지는 않을 것이며, 부정의한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348d에서 소매치기와 같은 부정의는 들키지 않으면 이득이 될지언정 이러한 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x 만을 진정으로 부정의한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뿐, y 는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

트라시마코스가 343d~e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예로 되돌아가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도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예가 벌어지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피치자가 무조건 정의로운 자이고 통치자가 무조건 부정의한 자는 아니다. 부정의한 피치자도 존재할 수 있고 정의로운 통치자도 존재할 수 있다. 반면에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세 가지 예가 벌어지는 일상적인 현실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대개 피치자는 개인 상호 간의 계약 관계에서든 국가와의 관계에서든 정의로운 것이다. 통치자가 제정한 법을 피치자가 위반하여 부정의를 저지를 경우에 발각되면 처벌과 비난을 받게 되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대개 가장 큰 손해를 봄으로써 매우 고통스럽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기에, 발각될 경우에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부정의가 발각되어 입게 될 손해에 개의치 않고 이를 감당해내려는 일부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부정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이런 사람을 신전 절도범과 같은 y 로 간주하여 부정의한 자로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서 그를 진정으로 부정의한 자로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일부 부정의한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부정의한 자로는 간주되지 않기에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면, 피치자는 정의로운 자이다.

피치자와 달리, 대개 통치자는 개인 상호 간의 계약 관계에서든 국

가와의 관계에서든 부정의할 것이다.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진정으로 부정의한 자는 참주처럼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통치자이다. 그런데 통치자들의 수가 많은 정체일수록, 모든 통치자가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일 수만은 없다. 통치자는 더 많은 권력과 힘을 지닌 통치자(m)와 더 적은 권력과 힘을 지닌 통치자(n)로 나뉠 수 있다. m은 n의 부정의를 제지할 권력과 힘을 갖고 있기에, n은 m의 이득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치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부정의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다.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정의보다는 부정의를 추구할 것이다. 359c에서 글라우콘이 말하듯이, 인간은 탐욕(pleonexia)을 갖고 있어서 제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통치자는 제지를 받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부정의한 행위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 어려운 참주와 같은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부정의를 저지르는 게 자연스럽다.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m은 x가 될 수 있기에 그는 m을 진정으로 부정의한 자로 염두에 두는 반면에, n은 x가 될 수는 없지만 m이 n을 제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n은 피치자에게 부정의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m만을 진정으로 부정의한 자로 염두에 두기에, m이 그가 실질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통치자이다. 그런데 그가 1)~3)을 주장할 때의 통치자에는 m뿐만 아니라 n도 포함된다. 그가 1)~3)을 주장할 때 갖고 있던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이 참주가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부정의한 자라는 논의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1)~3)에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치자는 m과 n인 반면에, 지금 논의에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치자는 m이다. 참주정을 제외한 다른 정체들에는 여러 명의 통치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n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n도 피치자에게 부정의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는 있지만, 참주처럼 남들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통치자는 아니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는 n을 진정으로 부정의한 자로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n 이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부정의한 자료는 간주되지 않기에 n 의 존재를 무시하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치자는 m 이며 부정의한 자이다. 그는 1)~3)을 주장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m 을 통치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3)에서 말하는 통치자는 지금 논의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동일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기에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지 않는다.

344c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자신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지만, 부정의는 자신을 위한 이득’이라고 말한다.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말은 1)과 동일하며, ‘부정의는 자신을 위한 이득’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지만,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앞서 말한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4와 동일하다. 정의와 관련해서는 더 강한 자 또는 통치자만이 이득을 얻는 반면에, 부정의와 관련해서는 더 강한 자 또는 통치자가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약한 자 또는 피치자가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트라시마코스가 한 말의 표현만 놓고 보면, 더 약한 자 또는 피치자도 부정의와 관련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344a~c의 참주의 예를 고려해 볼 때 그는 더 강한 자 또는 통치자만이 자신의 이득을 얻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가』 2권 367c에서 아데이만토스가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며 더 강한 자의 이득이되, 부정의는 자신을 위한 이득이지만 더 약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했다고 말하면서 344c에서 이루어진 트라시마코스의 마무리 발언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말과 ‘부정의는 자신을 위한 이득’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갖지만,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말과 ‘부정의는 더 약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함께 고려하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3)에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다. 3)의 표현만 놓고 보면, 정의는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의 입장에서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의 입장에서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부정의는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에게 자기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에게 자기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도 부정의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통치자의 입장에서 다른 통치자에게 좋은 것도 정의가 될 수 있다. 3)의 표현만 놓고 보면, 누군가의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정의인 반면에, 자기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은 부정의이다. 반면에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정의는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의 입장에서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에게 좋은 것인 반면에⁸⁾, 부정의는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에게만 자기 이득이 된다. 정의의 경우는 3)이 1)과 동일하며, 부정의의 경우는 1)에는 언급이

8) 3)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규정이 피치자의 입장에서 정의는 통치자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만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α.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가 정치적인 관계, 즉 통치자와 피치자와의 관계에서만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간의 윤리적인 행동 양식과 관련해서도 규정된다. β. 정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서, 3)이 말해졌을 때는 정의가 더 강한 자의 이득이었지만, 트라시마코스의 예에서는 정의가 남에게 좋은 것인데, 여기서 '남'은 통치자, 더 강한 자와 동일하지 않다. γ. 통치자 자신에게 있어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이정호, p.113).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답할 수 있다. α.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가 일반 사람들 간의 윤리적인 행동 양식과 관련해서도 규정되지만, 그의 논의는 참주처럼 부정의를 전면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부정의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의 정의는 정치적인 관계, 즉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β. 그는 부정의한 사람이 더 강한 자, 통치자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남'은 더 강한 자, 통치자와 동일하다. γ. 통치자가 정의로운 사람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통치자는 부정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볼 때 통치자 자신에게 있어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없고 3)에만 규정되어 있다.

3)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1)~3) 사이에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1)~3)의 표현만 놓고 보면, 1)과 3) 사이에 일관성은 없다.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의 입장에서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에게 좋은 것은 3)에는 부합하지만 1)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1)은 더 강한 자 또는 통치자와 더 약한 자 또는 피치자의 구분을 전제하지만, 3)은 더 강한 자들 또는 통치자들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더 약한 자들 또는 피치자들 사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1)과 3) 사이에 일관성은 없다. 반면에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과 3)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 1)에서든 3)에서든지 간에 정의는 피치자 또는 더 약한 자의 입장에서 통치자 또는 더 강한 자에게 좋은 것이다. 정의와 관련해서는 1)과 3)이 동일하다. 1)에 언급되지 않은 부정의를 3)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과 3)은 다르며, 3)이 1)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1)과 3)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 앞서 III에서 1)과 2)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1)~3)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다. 비록 1)~3)의 표현만 놓고 보면, 1)~3) 사이에 일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3)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데, 1)~3) 중 어느 것이 궁극적인 규정인가? 앞서 III에서 트라시마코스는 클레이토폰의 제안을 거부하고서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만을 통치자로 인정한 대목에서 2)보다는 1)이 궁극적인 규정이라는 게 밝혀졌다. 3)에는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반면에, 1)에는 정의에 관한 언급만이 있어서, 3)이 1)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이기에, 1)보다는 3)이 궁극적인 규정이다. 결국 3)이 1)~3) 중 궁극적인 규정이다.⁹⁾

9) Nicholson(pp.219-222)은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토론 방식 간의 차이에 주목해서 3)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관한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본다. 그는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와의 문답법

V. 결론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규정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III에서 그는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을 2) ‘정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규정보다 궁극적인 규정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만을 통치자로 상정함으로써 1)과 2)를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IV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1)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는 규정과 3)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규정 사이에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보았다. 1), 3)의 표현만 놓고 보면, 1)과 3)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다. 하지만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는 3)에서 피치자의 입장에서 정의는 통치자에게 좋은 것임을 말하는데, 이는 1)과 다르지 않다. 다만 1)에는 통치자의 부정의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반면에, 3)에는 통치자의 부정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과 3)은 다르다. 3)은 1)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으로서, 1)을 포괄하고 있기에, 1)과 3)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 결국 1)~3)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3)의 표현만 놓고 보면, 1)~3) 사이에 일관성이 없지만, 트라시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3)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 이 경우에 III에서 1)이 2)보다 궁극적인 규정임이 밝혀졌고, IV에서 3)이 1)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3)이 1)보다 궁극적인 규정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3)이 그의 정의에 관한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관한 궁극적인 규정이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그는 일관성 없이 정의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1)을 표명한 반면에, 자신의 긴 연설조의 논변 속에서 3)을 표명하는데, 그의 입장은 연설조의 논변에서 더 잘 드러나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 이정호, pp.114-117.

는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물론 그의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규정들의 표현만 놓고 보면, 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에 이런 혐의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가 아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는 분명히 정의에 관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다. 그런데 3)이 그의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각주 8에서 제시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1)과 3) 사이에는 내용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1)은 3)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의 정의에 관한 궁극적인 규정은 3)이라고 밝혀졌지만, 3)은 내용적으로 1)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과 3)의 차이는 부정의에 관한 언급 유무의 차이에 불과하다. 물론 3)의 표현만을 놓고 보면, 3)이 그의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처럼 1)은 3)의 일부에만 해당하며, 3)에서는 통치자와 피치자(더 강한 자와 더 약한 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의와 부정의가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혔듯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는 1)에서든 3)에서든 통치자와 피치자(더 강한 자와 더 약한 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의와 부정의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1)과 3)은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3)을 트라시마코스의 궁극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 기존의 입장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의 규정들의 표현과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태라는 두 가지 측면에 따라 그의 정의에 관한 규정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정의에 관한 규정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고만 또는 없다고만 주장한 기존의 입장들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통치자는 부정의로써 이득을 취하고 피치자는 정의로써 손해를 봄을 역설한다. 현실은 그의 말처럼 움직이는가? 그럴 경우에 이는 바람직하며 정의로운가?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달리 정의가 일차적으로 피치자나 더 약한 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논의를 『국가』 1권 후반부에서, 더 나아가 2~10권에서 펼친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대로 움직이는 현실은 불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했기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논박하고자 한 것 같다. 그만큼 정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트라시마코스의 말처럼 움직이는 현실은 통치자(더 강한 자)에게만 유리하고, 피치자(더 약한 자)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려면 정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요청되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유의미하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부정의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점에서 그의 정의에 대한 주장은 의의가 있으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주장을 계속 음미할 가치가 있다.

투 고 일: 2011. 4. 27.
심사완료일: 2011. 6. 11.
게재확정일: 2011. 6. 20.

임성진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이정호, 「플라톤 국가편에 나타난 트라시마코스 주장의 일관성 탐색」,
『희랍철학연구』, 종로서적, 1987, 107-126.
- 플라톤, 박종현 역, 『국가』, 서광사, 1997.
- Annas, J.,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Oxford: Clarendon Press, 1981.
- Chappell, T. D. J., “Thrasymachus and Definition”,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18, 2000, 101-107.
- Chappell, T. D. J., “The Virtues of Thrasymachus”, *Phronesis*, 38, 1992, 1-17.
- Dorter, K., *The Transformation of Plato's Republic*, Oxford: Lexington Books, 2006.
- Everson, S., “The Incoherence of Thrasymachus”, in :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16, 1998, 99-131.
- Hadgopoulos, D., “Thrasymachus and Legalism”, *Phronesis*, 18, 1973, 204-208.
- Hourani, G., “Thrasymachus' Definition of Justice in Plato's Republic”, *Phronesis*, 7, 1962, 110-120.
- Kerferd, G., “The doctrine of Thrasymachus in Plato's “Republic””, in : *Wege der Forschung*, CLXXXVII, Darmstadt, 1976, 545-563. [원래는 *Durham University Journal*, 40, 1947, 19-27에 실린 논문].
- Kerferd, G., *The Sophistic Movement* (Cambridge, 1995), 김남두 역, 『소피스트 운동』, 아카넷, 2003.
- Kerferd, G., “Thrasymachus and Justice: a Reply”, *Phronesis*, 9, 1964, 12-16.
- Maguire, J., “Thrasymachus or Plato?”, *Phronesis*, 16, 1971, 142-163.

- Nicholson, P., “Unravelling Thrasymachus’ Argument in “the Republic””, *Phronesis*, 19, 1974, 210-232.
- Plato, tr. Reeve, C. D. C., *Republic*,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4.
- Reeve, C. D. C., *Philosopher-Kings: The Argument of Plato’s Republ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Reeve, C. D. C., “Socrates Meets Thrasymachus”,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67, 1985, 246-265.
- Slings, S. R., *Platonis Rempublicam*, Oxford: Clarendon Press, 2003.

ABSTRACT

Inquiry into the Consistency of Thrasymachus' Definitions of Justice

Lim, Sung-Jin

Thrasymachus presents three definitions of justice in Plato's *Republic* I: 1) 'Justice is what is advantageous for the stronger', 2) 'It is just to obey to rulers', and 3) 'Justice is the good of another'.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sistency among these three definitions. At leas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tronger, definitions 1 and 3 are inconsistent. With a focus on the definitions' expressions, there is no consistency among these three definitions. However, by focusing on the situation that he keeps in mind, it is possible to find consistency among the three definitions. It is just that the ruled obey the rulers and give them advantages, and it is unjust that rulers act unjustly and give themselves advantages. According to Thrasymachus, the tyrant is a model of the unjust. From this aspect, consistency can be found among the three definitions. In this case, the third definition is his ultimate definition. He considers that the first definition is superior to the second definition by rejecting Clitophon's suggestion. The first definition is regarding only justice, but the third definition is regarding both justice and injustice. Since the third definition contains more contents about justice and injustice than the first one does, it is concluded that the third definition is his ultimate definition.

Keywords: Thrasymachus, Justice, What is Advantageous for the Stronger, Obedience to Rulers, Good of Another, Consistency